

대학문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조 용 훈

(한남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서 론
- II. 대학문화의 현실
 1. 과거 기독교대학에 나타난 대학문화의 수월성
 2. 학문적 수월성 상실
 3. 도덕적 수월성의 상실
 4. 문화적 수월성의 상실
 5. 공동체성의 상실
- III. 대학문화 혼돈의 원인들
 1. 사회적 원인들
 2. 대학 내적 원인들
- IV. 건강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기독교윤리적 과제
 1. 대학문화의 변혁자로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확립
 2. 지성적인 대학문화 창조의 과제
 3. 전통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관계 회복
 4. 공동체 문화의 재건
- V. 결 론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대학교육 및 기독교대학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대학문화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문화란 대학구성원의 대학 캠퍼스 안팎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대학의 전통,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 가치관 등도 포함된다.

오늘의 대학문화는 과거 대학들과는 달리 학문적, 문화적, 도덕적 수월성은 물론 대학의 공동체성을 상실하였다. 여기에는 현실 사회주의 몰락, 소비주의 및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같은 대학 외적 원인만이 아니라 멀티버시티의 등장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와 같은 대학 내적 원인들도 작용하고 있다.

건강한 기독교적 대학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대학 구성원들이 세속적인 대학문화의 변혁자라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세속적인 대학문화에 대한 적대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문화위임'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해야 한다.

둘째, 지성적인 대학문화 창조에 관심해야 한다. 대학은 처음부터 진리를 탐구하고 학습하는 교수와 학생의 학문공동체였다.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변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기풍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학의 축제나 기타 활동들에서도 학술활동이 강화되어 대학의 학문적 수월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셋째,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970년대부터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형성된 저항문화는 서구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학생들은 전통문화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채 대학문화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독교 학생들이 대학문화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관계맺음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공동체는 교육에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아니라 대학문화 형성에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대학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학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주제어: 대학문화, 저항문화, 전통문화, 대학공동체, 문화위임

I. 서론

기독교적 대학문화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가운데 하나다. 엘리엇 아이즈너(E. Eisner)는 ‘암시적 교육과정’(implicit curriculum)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대학문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교육은 명시적 ‘수업’의 형식이나 ‘강의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전체 삶의 방식, 즉 수업시간 이외의 일상생활과 강의실 바깥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난다.¹⁾ 실제로 학생들은 강의실만이 아니라 강의실 바깥에서도 배우며, 교수만이 아니라 동료와 선배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채플이나 기독교교양 과목 같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비공식적 교육과정인 대학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문화란 대학 구성원, 특히 대학생의 대학 안에서의 생활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학의 전통이나 가치들도 포함이 된다. 버튼 클라크(R. R. Clark)는 대학생 문화를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했다:²⁾ 첫째, ‘학구형 학생문화’로서 전공학문을 비롯한 학문 연구에 대학생활의 목표를 두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문화다. 이들 학구적 대학생들은 주로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을 무대로 대학생활을 한다. 둘째, ‘사교형 학생문화’로서 학업보다는 동료 학생들과 어울리는데 더 많이 관심하는 대학생들로 이루어지는 문화다. 이들은 학업보다는 학생회활동, 스포츠, 축제 등에 관심이 많다. 셋째, ‘저항형 학생문화’로 기성체제는 물론 대학당국이나 교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학생들이 만드는 문화다. 이들은 대학 밖의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적 모순과 개혁에 관심을 표현한다. 넷째, ‘취업형 학생문화’로 대학을 취업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지는 문화다. 취업형 학생들은 학점 취득에 관심하긴 하지만 순수한 학문연구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에 우선적 관심을 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학생문화 유형은 공존하기 마련인데,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두드러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1970-80년대와 같이 우리 나라의 어두운 정치 상황 속에서는 ‘저항형 학생문화’가 지배적 대학문화였다면, 최근에는 어려운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형 학생문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래 기능이 진리의 탐구와 지식의 전수에 있기 때문에 ‘학구형 학생문화’가 대학문화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학이 어느 대학문화 유형을 보다 더 격려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II. 대학문화의 현실

1. 과거 기독교대학에 나타난 대학문화의 수월성

1) 이규민, “기독교 종합대학의 기독교 관련 과목 강의 현황 진단 및 개선책”, 오우성 외, 「기독교 종합대학의 정체성과 제도」(이문출판사, 2000), 205.

2)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과 대학문화」(인하대학교, 2000), 16-18.

우리 나라 고등교육의 역사는 기독교 대학으로부터 출발한다.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한 시민의식 및 민족의식을 지닌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배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족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초창기 기독교 대학들은 일반 대학과 비교하여 문화적 수월성도 지니고 있었다. 한 예로 1920-30년대 잘 알려진 잡지 가운데 하나인 「조광」은 평양의 숭실 대학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조선에서 최고학부이었던 숭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당시의 학도들은 참말 인격에 있어서 학식에 있어 조선의 지도자 됨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조선문화의 연원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도 숭실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학술용어, 웅변술, ‘스포츠’를 비롯하여 심지어 의복의 ‘맵시’까지도 숭실 대학에서 모범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리하여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동경하는 엄연한 목표가 되어왔다.”³⁾

하지만, 오늘의 대학문화는 더 이상 일반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지 못한다.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 대학이 대학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새로운 실험정신에 따라 새로운 대안문화를 창조하기보다는 대중문화의 아류로 전락해가고 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과 문화적 차별성을 찾을 수도 없다. 아래에서 우리는 대학들의 자기 반성적 입장에서 오늘의 대학문화를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기독교 대학문화를 창조를 위한 과제를 탐색하도록 하겠다.

2. 학문적 수월성 상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는 학문공동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학을 ‘지성의 전당’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대학교수는 외국 교수에 비해 덜 연구하고, 우리 나라 대학생은 외국 대학생에 비해 덜 공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수 수의 부족, 도서관 장서 부족과 같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학생들의 면학정신의 결여에 그 핵심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부족한 학문활동의 현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동적인 학습문화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길들여진 비자발적인 학습태도와 사교육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도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른다. 중고등학교에서 습득한 주입식 강의, 교사 중심의 강의, 단답형 학습방식에 익숙해져서 대학 공부에서 필요한 기초 사고력, 글쓰기, 토론하기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대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많은 시간을 독서하며 강의 준비를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거의 준비시간이 없이 수업에 임하고 있다.

둘째, 취업준비만을 고려한 편중된 학습태도도 문제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토플 등 어학공부, 각종 자격증 시험공부, 각종 고시공부, 그리고 컴퓨터 관련 공부 등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목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업중심의 학습문화는 학부시절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통해 풍부한 교양과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연마하는 외국대학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제2외국어에 관심하는 학생이 2.2%에 불과하고, 인성교육을 비롯한 교양과목에 대해서는 오직 7.7%의 학생만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는 데서도 이러한 왜곡된 학습태도를 읽을 수 있다.⁴⁾

3) 유영렬,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 대학사연구회 편,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한길사, 2000), 92 재인용.

셋째, 학생들의 독서량이 절대 부족하다. 우선, 전공과 관련한 독서량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47%가 3권 미만의 책을 읽고, 1권 미만을 읽는 대학생도 26%나 되는데 반해서, 미국 대학생의 53%는 8권 이상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서적 이외에 교양관련 서적을 한 학기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우리나라 대학생이 33%, 그리고 1-2권 정도만 읽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⁵⁾ 우리나라 대학생의 독서 문제는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적인 것도 문제다. 선호하는 책을 살펴보면, 심오한 학문과 사상을 다룬 책이나 전공과 관련된 책들보다는 흥미나 단순지식과 같은 가벼운 읽을거리들이 주종을 이룬다.

넷째, 면학분위기도 약한 편이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한 학기에 14주에서 16주 정도의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각종 공식행사나 대학생들의 자치행사로 인해 수업결손시간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결석률이 높은 편인데 이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문 이외의 목적으로 대학을 온 학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도 있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중심의 교육정책의 오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학점을 딸 수 있는 과목에만 관심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책의 본래 취지는 필수과목을 줄이는 대신에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학습의욕을 높이려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은 쉽게 공부하고 학점을 따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3. 도덕적 수월성의 상실

대학은 장차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도덕성에 관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의 도덕적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 학문적 정직성이 사라지고 있다. 시험의 부정 행위나 레포트의 표절과 베끼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절대적 가치관이 약해지고 도덕적 수치심이 사라지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형편이다. 그 결과 소수의 기독교 대학 외에는 무감독 시험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성(性)윤리에 있어서도 기독교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학생사이에 그리 큰 차별성을 찾기가 어렵다. 혼전 성문제나 동거문제들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으나 책임적 성을 위한 윤리관은 아직 충분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많아지고, 직업선택에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도덕성 상실도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발생하고, 연구비를 유용하며,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논문을 표절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4)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원미사, 1999), 212.

5)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27-28, 248.

4. 문화적 수월성의 상실

1970년대만 해도 대학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비판과 군사독재권력에 저항하는 투쟁 행동, 그리고 낭만이 어우러진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서구문화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탈춤과 민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날 대학들은 소비문화와 향락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고유한 대학문화를 잃어가고 있다. 첫째, 대학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축제를 보더라도 학술행사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단지,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노는 프로그램들로 가득하다.

둘째, 대학생들의 음주문화도 심각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남녀 대학생 100명 중 92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이중 82.5%는 술자리에서 5잔 이상 과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신입생이 입학하면 학과별, 동아리별 신고식부터 시작해서 학과 모임, MT, 개강파티, 종강파티, 축제 등 온갖 모임에 의례적으로 술판이 벌어진다. 저녁 늦은 시간에 만취 상태로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과도한 음주행위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다음날 학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탄주로 인해서 매년 10여명 안팎의 학생들이 음주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대학의 놀이문화도 염려스럽다. 우리 나라 대학생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대학생의 23.5%가 유흥장을 찾고, 11.4%는 특별한 일이 없이 빈둥거리고, 12.1%는 대화와 토론, 나머지 11%는 스포츠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가시간 활용은 외국 대학생들이 주로 스포츠(48%), 독서(23.7%), 그리고 동아리활동(18.8%)을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수동적이고 소비향락적임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소비향락적 특징은 대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주로 찾는 장소가 술집,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그리고 만화가게라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공동체성의 상실

모든 문화는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지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공동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대학구성원들의 소속감과 헌신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을 들 수 있겠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는 대학의 특성상 대학은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개인주의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게다가 사이버문화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더 개인주의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고립감과 소외감을 강화시키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따라 경쟁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적관리가 중요해 지면서 학생들 간의 경쟁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경쟁의식은 학생들의 학습형태에도 나타나는데 외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스터디 그룹을 통해 공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주로 개인적 학습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경쟁 위주의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방법

6) <한국경제신문>, 2002년 3월 3일.

7)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233-235.

의 반복에 불과하다. 게다가 학부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학과 단위의 모임이 사라지면서, 선
후배간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도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셋째, 대학 구성원 사이의 집단 이기주의의 확산도 건강한 대학공동체 건설의 장애가 되
고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통하여,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
회를 통하여, 그리고 행정직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각기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학생과
교수 사이, 학생과 행정직원 사이, 그리고 교수와 행정직원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사무적
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총장 직선제는 교수들간의 파벌을 형성하여 대학공동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리고 대학 행정의 관료주의화로는 대학 구성원들의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K C I

III. 대학문화 혼돈의 원인들

1. 사회적 원인들

1990년대 이전까지 대학문화는 현실비관적인 운동권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저항문화였다. 하지만, 이후 저항문화가 약해지면서 이렇다할 대학문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가운데 물질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 특징을 지닌 대중문화가 대학사회를 파고들어 일반 사회의 대안문화로서 존재해야 할 대학문화마저 대중문화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학문화가 이처럼 혼란에 빠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1980년대 말부터 진행된 동유럽에서의 현실사회주의 몰락을 들 수 있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은 운동권 학생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적 혼란과 이념적 목표 상실이란 결과를 가져왔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1990년대 초 문민정부의 등장은 반독재 민주화를 추구하던 학생운동 세력의 급격한 와해를 가져왔다. 군부독재의 타도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대학생들의 목표가 어느 정도 실현되면서 운동권 학생들을 통하여 형성된 저항문화가 급격히 위축되었다. 당시 운동권 학생들은 국내의 정치 경제적 왜곡이 새로운 식민주의 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서, 정치 경제적 독립의 선결 조건이 되는 문화적 자립을 위해 풍물과 탈춤을 포함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학 안에는 전통문화에 토대한 저항문화가 자연스럽게 대학문화로 형성되었다.

한편, 1980년대 물질적 풍요 속에 청소년기를 보낸 신세대 대학생은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에 관심하는 대신에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문화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50년대의 대학생들이 6.25세대로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경험한 세대이고, 1960년대의 대학생들이 4.19세대로서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 세대이며, 1970년대의 대학생들이 반독재 투쟁에 헌신한 반유신세대이고, 1980년 대학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세대로서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정치의식과 역사의식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의 대학생들은 역사나 정치에 무관심한 탈정치적 세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세대 대학생들은 개성을 중시하며,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자아개발에 관심하는 개인주의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⁸⁾ 출산율이 떨어지고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주의적 경향은 과거에 집단주의 속에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의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대학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각종 동아리 모임이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

2. 대학 내적 원인들

오늘날 대학문화가 위기에 빠진 데는 대학 내부의 문제들도 존재한다. 우선은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떤 사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속에 존재하는 대학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편, 대학사회 자체가 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클라크 커(C. Kerr)가 말한 멀티버시티(multiversity)는 문화적 혼

8) 박재홍, “한국 신세대의 세대경험과 의식구조”, 『현대사회』 43호(1996/봄.여름), 42.

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대규모의 다기능적인 멀티버시티는 학생들이 다양한 계층과 인종들로 구성되며, 선택의 범위가 너무 넓어 방황하는 학생이 늘어나며, 지식세계의 전문화로 교수들 간에도 소외가 증가하게 된다.⁹⁾ 게다가 학부제의 도입으로 학과 소속감마저 약화되면서 학생들은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소비자중심교육 정책에 따라 학생들의 과목선택의 자율성과 자유시간은 늘어났으나 학생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원리에 따른 경쟁원칙의 도입은 학생들 사이의 경쟁심을 강화하여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술과 유흥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 사이비종교나 신흥종교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1960년대 미국 대학에서 반문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학생들이 동양의 종교들, 신흥종교, 그리고 각종 주술종교에 관심하게 된 것도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

그리고 최근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는 학생들을 더욱 어려운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중세의 대학에선 교수와 학생이 한 캠퍼스에 거주하며 생활을 함께하며 학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수로부터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형성에 필요한 생활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었다. 과거 대부분의 학부중심대학들에서도 학생에 대한 인격지도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면서 교수들이 강의나 학생지도보다는 연구와 출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과 교수가 인격적 관계를 맺을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말하자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그렇다고 교수들로부터 지도도 받지 못하는 ‘방치된 세대’(abandoned generation)가 된 것이다.¹¹⁾

실제로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교수들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교수들의 전문지식과 강의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교수가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감정과 문제,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대답한 학생이 25.7%인 데 비하여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은 35.9%나 되었다.¹²⁾

IV. 건강한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기독교윤리적 과제

1. 대학문화의 변혁자로서 기독교대학생의 정체성 확립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³⁾ 하나는 문화에 대한

9) C. Kerr, 이형행 역, 「대학의 효율: 연구중심대학」(학지사, 2000), 67-70.

10) G.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20.

11) W. H. Willimon and T. H. Naylor, *The Abandoned Generation. Retaking Higher Education* (W. B. Eerdmans Publishing, 1995).

12)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183.

13) R. Niebuhr,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대한기독교서회, 1958); R. E. Weber,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엠펙, 1984).

적대적인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무비판적인 문화의 수용이며, 마지막 하나는 문화의 기독교적 변혁이다. 문화 적대적인 입장이 문화 비관주의라면, 무비판적 문화 수용적 입장은 문화 낙관주의이며, 문화 변혁의 입장은 문화 현실주의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유형론적 토대에 기초하여 우리는 대학문화에 대한 기독교대학생의 태도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문화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란 오늘의 대학문화를 반기독교적 세속문화로 규정하면서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축제의 세속성을 비판하며 참여하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다. 이런 입장에 서게되면 기독교대학생들은 점점 대학에서 주변부로 물러나게 되어 문화창조의 주도적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의 태도는 오늘의 대학문화가 기초하여 있는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한 비판 없이 자신을 적응해 가는 입장이다. 대학의 학문방향이 어떤 곳으로 흘러가든지, 대학생의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가는지, 대학생의 문화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동화되어 가는 태도다. 이런 입장에 서게되면 기독교대학생들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게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세속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대학문화에 대한 변혁적 입장은 현존하는 대학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기독교적 대안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대학문화에 대해 무조건적 거부나 무비판적 수용 대신에 비판적 참여와 대안 제시에 관심이 있다. 현존하는 대학문화의 세속적 세계관을 폭로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인간의 소외와 공동체의 파괴를 문제 삼으며,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대학문화 창조를 모색한다. 기독교대학생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대학문화 창조를 위하여 부름받은 소명자들로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말하자면, 강의실과 연구실에서의 학문활동과 캠퍼스 안에서의 모든 활동들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다.

2. 지성적인 대학문화 창조의 과제

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습득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된 학문공동체다. 학문공동체로서의 대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학문활동의 주체인 교수들의 연구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수들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견한 지식을 교육을 통해 확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강의 내용과 기법을 개발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학문활동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새롭게 해야 한다. 당장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학이나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모든 학문에 기본이 되는 교양에 대한 광범위한 독서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과목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경쟁위주의 학습 방법론도 개선되어야 한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혼자서 공부하는 반면에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학생은 15%에 머물렀다.¹⁴⁾ 다양한 스터디 그룹과 토론 모임을 통한 집단적 학습방법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토론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그리고 대학당국도 학사일정을 엄격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에 대한 관리가 분명하고, 각종 행사들로 인해 수업시간에 결손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14) 한준상, 「생각하는 학교 꿈꾸는 아이들」(학지사, 1997), 198.

해야 한다.

한편, 기독교 대학에서 학문적 수월성은 교수들의 우수한 연구업적만이 아니라, 기독교 대학의 학문적 소명인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려는 노력과 성과에서도 찾아야 한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통해 기독교 학자들은 학문의 무규범성과 가치중립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학문방법론을 모색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통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관계 회복

대학문화에서 기독교가 소외되고 주변화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독교대학생의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멀리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서구 선교사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전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교(異敎)시 했다. 문화우월적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화전파를 복음전파와 동일시 하기도 했다. 그 결과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전통문화를 경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¹⁵⁾ 그 대신 학생들은 서양인의 태도와 습관을 모방하는 서구화가 곧 기독교화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국의 민간신앙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신앙과 샤마니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민간신앙을 샤마니즘으로 규정하는 과오를 범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민간신앙은 '미신'으로 죄악시됨으로써, 민간신앙이 지니고 있는 종교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¹⁶⁾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 운동권 학생들을 주축으로 서구 제국주의 비판과 극복을 위해 민족문화와 민중문화에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탈춤과 풍물에 대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독교 대학의 학생동아리들, 특별히 복음주의적 선교단체 동아리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학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은 사회에 무관심하며, 민중의식은 물론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조차 없는 '의식 없는 학생'들로 각인 되었다.

앞으로 기독교대학생들이 대학문화의 주류가 되고, 대학문화 변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전통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전통문화가 민족문화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기독교적 문화로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 기독교의 토착화를 위한 문화신학적 노력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대학 현장에서 기독교적 대학문화 창조를 위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4. 공동체 문화의 재건

중세유럽에서 대학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수도원의 역사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교육활동과 공동체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 수도원에서의 교육의 특징은 종교적 문헌들에 대한 연구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한 공동체 교육이었다.¹⁷⁾ 오늘날 대학이 지향해야 할

15) 성기산, "구한말 기독교학교의 성립과 의의", 동서문화연구소 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103-104.

16) 이필영,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동서문화연구소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205-209.

인격교육은 공동체 속에서만 실현 가능한 목표다. 스티븐 가버(S. Garber)의 지적처럼, 인격의 통전성을 이루는 데에는 세계관적 확신이나 좋은 성품 이외에도 상호 격려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¹⁸⁾ 그래서 기독교교육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지식 전달 방식의 교육 대신에 신앙과 문화적 상관성을 강조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¹⁹⁾

윤리학자들 역시 한결같이 개인의 성품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공동체가야말로 도덕적 선과 덕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이전 세대의 덕과 공동선에 대한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신앙공동체는 그리스도인 개인들에게 사회적 맥락과 궁극적 준거 공동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윤리의 토대가 되는 성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²⁰⁾

이처럼 공동체가 교육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공동체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비공동체적인 현대의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이 한 가지 원인이 된다. 파커 팔머(P. Palmer)는 현대 교육철학과 교육방식이 반공동체적이고 비공동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다:²¹⁾ 첫째, 연구의 초점을 언제나 외부에 둬으로써, 연구자 역시 그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구에서 객관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연구대상에 감정이입을 하지 말도록 교육받는다. 둘째, 항상 ‘저 바깥’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 자신의 ‘내적 실재’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셋째, 객관주의에 사로잡혀 주관적 생각을 편견이라고 비판함으로써 인식주체인 자아를 고립시킨다. 넷째, 피교육자가 이웃과 세계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길러진다. 그리고 끝없는 경쟁지향적 교육방식이야말로 대표적인 반공동체적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물질적 풍요 속에 성장한 신세대 대학생들과 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대학공동체 형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래 대학공동체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주의화될 가능성이 큰 조직이다. 그런데 과거 어떤 세대보다 개인주의적인 대학생들의 등장과 동아리 활동이나 대학전체 행사에 대한 무관심은 대학문화 형성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확산도 건강한 대학공동체 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를 통하여,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통하여, 그리고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 각기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대학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 가능성도 커가고 있다. 그리고 대학이 거대화되면서 학생과 교수 사이, 학생과 행정직원 사이, 그리고 교수와 행정직원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사무적이고 관료적이 되어가고 있다. 기독교대학에서마저 협력과 섬김보다는 경쟁과 위계질서가 대학구성원 사이의 지배적 관계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대학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건강한 기독교적 대학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

17) P. Palmer,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IVP, 2001), 43.

18) A. Holmes,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W. B. Eerdmans Publishing, 2001), 112.

19)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 (John Knox Press, 1967); J. H. Westerho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he Seabury Press, 1976).

20) S. Grenz,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IVP, 2001), 272-275.

21) P. Palmer,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61-70.

어야 한다. 물론, 오늘날 대학의 현실에서 건강한 대학공동체를 건설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편이다. 대학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에서 사무적 관계로 변질되고, 관계 대신에 제도와 조직이 우선되기 마련이다. 게다가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생활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영국의 기숙사학교와 같은 대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데 윌리몬(W. H. Willimon)과 내일러(Th. H. Naylor)는 대학공동체 형성을 위한 요건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²²⁾ 첫째,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둘째,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 헌신이 필요하다. 셋째, 구성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동의 목표와 공유하는 가치가 있어야 한다. 넷째,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다음 몇 가지 대학공동체 창조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공동체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이념을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념과 구성원을 매개하는 의사소통수단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학이 거대화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행정편의주의나 관료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문화를 극복하고, 구성원 사이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과 같은 경쟁지향적 교육방식을 바꿔야 한다. 교육은 경쟁을 통해서 보다는 상호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학습방법 대신에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학습방법으로의 변화를 위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셋째, 공동체가 생기 있게 되려면 각종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아리 활동은 강의실에서의 수업 이외에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이며 또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로서 대학문화 창조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선배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적 지도력을 훈련받을 수 있다. 게다가 봉사동아리들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기독교대학에서의 종교 동아리 활동은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들에 이어 학생들에게 신앙적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²³⁾

넷째, 기독교 대학에서 학사력과 교회력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교회력은 기독교 문화가 함축되어 있는 종합문화로서 대학의 기독교적 문화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주간에 축제적 성격을 지닌 대학행사를 마련한다면 기독교적 교육은 물론 공동체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주변환경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문화는 단지 캠퍼스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캠퍼스 주변과 상호 밀접히 관련을 맺으며 형성된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캠퍼스 주변은 점점 유흥가로 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표적인 대학촌 가운데 하나인 서울의 신촌을 예로 들면, 40여 개의 노래방, 20여 개의 락카페, 40여 개의

22) W. H. Willimon and Th. H. Naylor, 위책, 146-153.

23) 반신환, “기독교 대학의 교내 신앙 프로그램의 평가: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남대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문화연구」 제8집(2003/12), 225.

선술집과 생맥주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약 10만 명의 유동인구가 움직이는데, 하루 저녁에 소비되는 돈만 최저 5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²⁴⁾ 이것은 오늘의 대학이 더 이상 대중문화의 변혁자나 창조자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자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캠퍼스 주변의 문화를 보다 건강한 먹거리와 건전한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의 관심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그 외에도 대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회들의 관심도 필요하다.

V. 결 론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생들 가운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아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의 교육환경은 물론 대학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다른 어떤 사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오래 전에 전통문화와 가치관이 붕괴되었지만 그것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은 아직도 형성 중에 있다. 게다가 멀티버시티(multiversity)화된 대학의 다기능적 특성으로 인해서 대학 전체를 아우를만한 통일성이 약화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대학생들 상당수에게 있어서 자아 정체성이 약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지니지 못한 채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대학문화의 창조다.

교육과 문화형성에 있어서 공동체의 생활방식과 분위기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은 채플이나 기독교 교양과목 같은 공식적인 커리큘럼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는 대학문화를 기독교적 분위기로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클라크(W. Clark)가 주장한대로, “기독교 대학은 종교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종교적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²⁵⁾ 말하자면, 기독교대학에서는 대학구성원의 일상생활, 즉 연구와 교육, 학습, 행정의 모든 활동들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적이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선 대학인과 대학당국의 대학문화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는 대학문화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보다는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한 변혁적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형성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변혁의 과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 대학인에게 요청하시는 ‘문화위임’이다.

24) 한준상, 「생각하는 학교 꿈꾸는 아이들」(학지사, 1997), 158.

25) E. Trueblood, *The Idea of a College*, (Harper & Row, 1959), 32 재인용.

참고문헌

- A. Holmes,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W. B. Eerdmans Publishing, 2001)
- C. E. Nelson, *Where Faith Begins* (John Knox Press, 1967)
- G. Marsden,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E. Trueblood, *The Idea of a College*, (Harper & Row, 1959)
- J. H. Westerhof III,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he Seabury Press, 1976)
- W. H. Willimon and T. H. Naylor, *The Abandoned Generation. Retbiking Higher Education* (W. B. Eerdmans Publishing, 1995)
- S. Grenz, 신원하 역, 「기독교윤리학의 토대와 흐름」(IVP, 2001)
- C. Kerr, 이형행 역, 「대학의 효용: 연구중심대학」(학지사, 2000)
- R. Niebuhr,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대한기독교서회, 1958)
- P. Palmer, 이종태 역,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IVP, 2001)
- R. E. Weber,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엠마오, 1984)
- 박재홍, “한국 신세대의 세대경험과 의식구조”, 『현대사회』43호(1996/봄 여름)
- 반신환, “기독교 대학의 교내 신앙 프로그램의 평가: 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남대기독교문화연구소, 『기독교문화연구』제8집 (2003/12)
- 성기산, “구한말 기독교학교의 성립과 의의”, 동서문화연구소 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 이규민, “기독교 종합대학의 기독교 관련 과목 강의 현황 진단 및 개선책”, 오우성 외, 『기독교 종합대학의 정체성과 제도』(이문출판사, 2000)
- 이필영,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동서문화연구소편,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한남대학교출판부, 1989)
- 이현청, 『한국의 대학생』, (원미사, 1999)
- 인하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대학생과 대학문화』(인하대학교, 2000)
- 유영렬, “최초의 근대대학: 숭실대학”, 대학사연구회 편, 『전환의 시대 대학은 무엇인가』(한길사, 2000)
- <한국경제신문>, 2002년 3월 3일
- 한준상, 『생각하는 학교 꿈꾸는 아이들』(학지사, 1997)